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가동한다

- 위성·항공 예찰 및 관계기관·지자체 사전수거를 통해 피해 저감 총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동중국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5월 2일(목)부터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모니터링 총괄) 국립수산물과학원, (위성관측) 국립해양조사원 / (항공·함정 예찰)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 (수거·처리) 지방자치단체 등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0일(일) 이어도 인근 먼 바다에서 천리안 위성이 괭생이모자반 군락을 발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여부를 감시해 왔다. 이후 4월 26일(금)부터 제주도 서귀포 해역과 전라남도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유입이 목격되면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제주,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및 유관기관(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청 등)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시설이나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 위성,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항공단 등을 활용하여 서남해 전역과 제주도와 전남 인근 해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자체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해안가에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해경 등 각 기관 소속 선박*들을 지원받아 사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공단 청항선 10척, 어촌어항공단 어항관리선 9척, 해경 방제정 15척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유해해양생물에 ‘괭생이모자반’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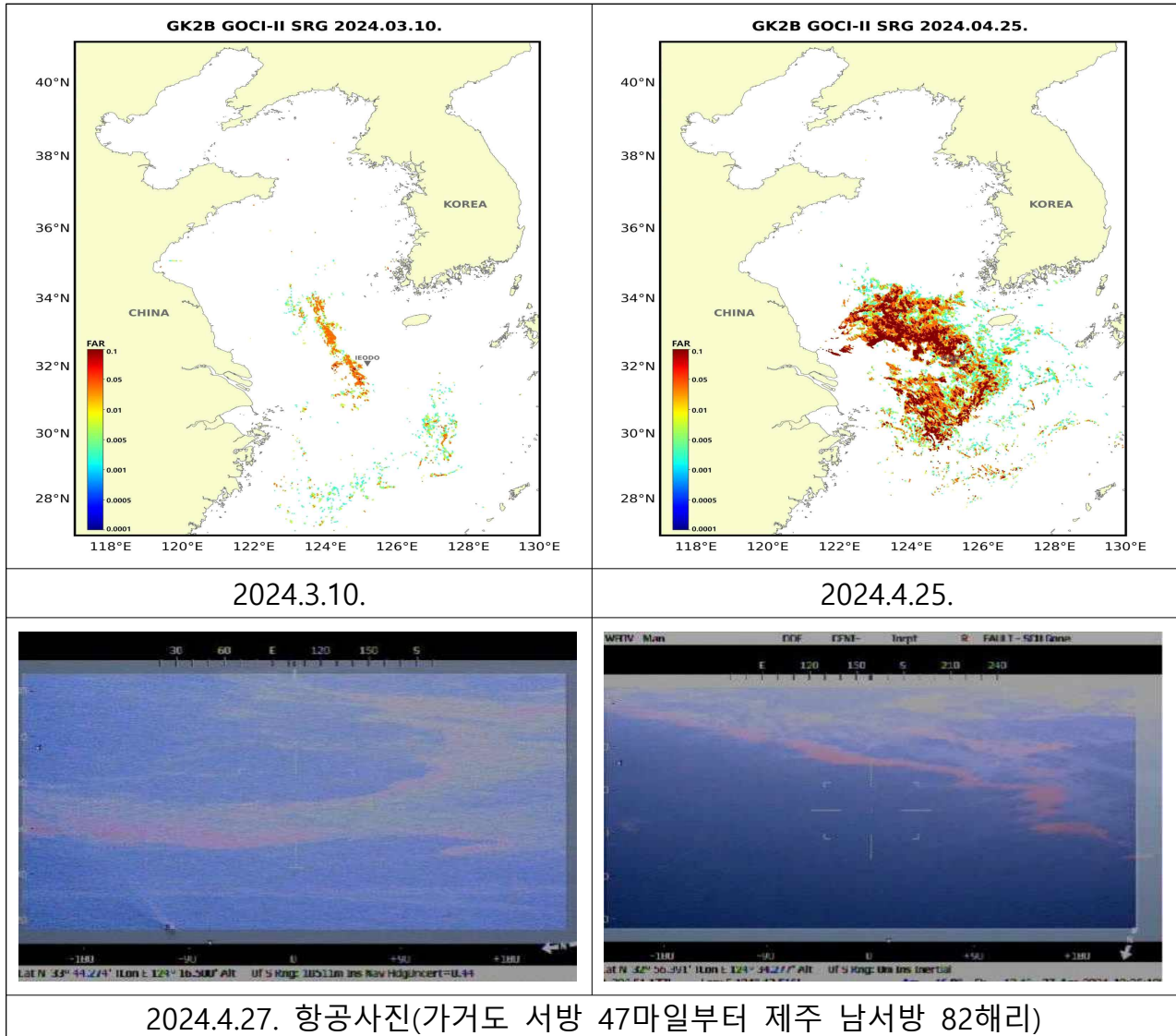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괭생이모자반은 통상 1~2월에 유입되었는데, 올해는 다소 늦은 시기에 유입되었다.”라며, “유입량도 평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양식장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성희 (044-200-5300)
	해양보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덕영 (044-200-5307)

참고

팽생이모자반 예찰 및 수거현장 사진

□ 위성 및 항공 모니터링 결과



□ 제주도 수거 현장 사진

